

#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촌 활력 UP

### 농어촌공 전북, 2030 농업인에게 농지 우선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농촌의 미래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0세대에게 농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매입, 임대 등을 통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젊은 농업인이 쉽게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관내 2030세대 2,963명에게 3,203ha를 지원했고, 올해 9월 현재까지 사업목표 1,551ha 중 372ha의 농지를 462명에게 지원해 농촌에 활기를 가져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20세 이상 만39세 이하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을 원하는 자로, 지원당시 소유농지와 임차농지



포함하여 6ha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지원대상 농지는 논, 밭, 과수원을 농지매매사업, 장기임대차사업, 공공임대형 농지매입사업(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지원 상한은 6ha까지다.

이강환 본부장은 “고령화시대에

2030세대 농지지원은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청년세대의 농업·농촌 조기정착을 통해 일지리를 창출하고 활기찬 농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현재까지(2019. 9. 26.까지) 도내 농업인을 위해 155억원의 농지규모화사업, 400억원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326억원의 경영회생지원사업, 293건(63억원)의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농진청, 'KOPIA 베트남' 10주년 기념행사 성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6일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농업과학원(VAAS)에서 'KOPIA 베트남 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이지원 국장, 한국대사관 최봉순 농무관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과 베트남농업과학원 응웬흥선 원장 및 협력사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농업부 장관은 10주년을 기념하여 KOPIA 베트남 센터 박광근 소장,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홍승길 박사 등 3명에게 감사표창을 수여했다.

KOPIA 베트남 센터는 총 20개 KOPIA 센터 중 가장 먼저 개소(2009년 8월) 했고,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그 동안 베트남농업과학원과 총 16개의 농업기술 협력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발된 기술을 농가현장에 보급한 결과, 베트남의 농업 생산성과 농가소득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례로 '방풍우량증자 생산보급체계' 시범마을 사업을 통해 생산량이 기존대비 18.9% 증가했다.

또한, 무병씨감자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량성은 10~15% 증가했고, 생산비는 30~35% 절감효과를 보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베트남 연구원 200명이 한국 농업기술 연수를 받았고, 한국청년 121명이 KOPIA 센터에 파견하는 등 인력교류를 통해 농업기술교육 지원 및 한국청년의 인재양성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농촌진흥청 이점식 국외농업기술과장은 "KOPIA 베트남 센터는 지난 10년간의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계화 및 시설농업까지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MG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협약식

중소기업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시: 2019. 9. 26. (목)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귀빈실



중소기업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생계위협으로부터 사회안전망 속으로

중기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 제도로서 지난 2007년 출범하였으며 곧 재적 가입자 120만 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차원으로 기존 14개 금융기관에 더해 앞으로 전국의 새마을금고 1,300여개의 지역 점포를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중기중앙회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경기 악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

망 속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황국현 지도이사는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의 싹싹이듯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싹싹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우리·우체국·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및 공제상담사, 인터넷(www.8899.or.kr), 모바일, 콜센터(☎1666-9988)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식품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한다

### 식품연, 식품가공적성정보센터 DB 활용도 증진 위한 경진대회 개최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이 2019년 식품가공적성정보센터DB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식품가공적성정보센터는 국내 농림축산 자원의 이용률 향상을 위한 식품품개발과 가공적성평가, 소재화 탐색 등의 기반연구 내용을 민간, 산업체 및 기관에 보급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44개 품목에 대한 식품가공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관련 홈페이지(www.fpdb.kr)를 통하여 국민에게 무상 제공 중이다.

식품연에서 주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식품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설된 본 정보센터 및 식품 가공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상금과 상장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경진대회 주제는 식품 가공 관련 문

제점 및 공정 효율성 개선, 기타 식품 가공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는 식품 제조 관련 종사자 및 식품 개발(제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식품연은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1차 서류심사, 2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명) 등 총 9명에게 시상을 할 예정이며 접수는 식품가공적성정보센터 홈페이지(www.fpdb.kr) 공지를 통해 가능하다.

가공공정연구단 김범근 단장은 "가공공정상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식품 중소기업을 돕고자 구축한 식품가공적성 정보센터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경진대회를 기획하였다"라며, "식품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사업 확대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우정청, 총괄국장 경영전략 컨퍼런스 개최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정창립)은 26일 청장, 총괄국장, 우정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3차 총괄국장 경영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재의 어려운 우정사업 경영여건을 공감하고 책임감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 사업별 추진 진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북우정이 나아갈 사업방향과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총괄국별 우수사례에 대한 노

하우 공유와 우편·금융사업 추진방향 토론을 통하여 소통과 상생의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전북지방우정청 정창립 청장은 "이날 논의된 추진전략과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모두가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적극적인 소통에 힘쓰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김윤상 기자

## LH전북본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한 업무협약 체결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26일 전주사랑의집, 전주일꾼쉼터, 전주희망의쉼터, 전주여성의전화와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시내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활성화를 위해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LH 전북본부는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게 LH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예정이며, 전주사랑의집·전주일꾼쉼터·전주희망의쉼터는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전주여성의전화는 가정폭

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LH 주거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신청·접수 절차를 도와 새 보급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정수 LH 전북본부장은 "서울 고시원 화재, 전주 여인숙 화재 등으로 최근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도 약 1만 7천가구가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내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민간과 공공이 한층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